

#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 교회니까요

목회하면서 심방을 참 많이 다녔습니다. 점심시간에 심방을 가게 되면, 심방받으신 분들이 식사를 정성껏 준비해주십니다. 어떤 분은 직접 목사님 어떤 음식 좋아하시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렁탕, 김치찌개 좋아한다고 하면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 아내에게도 묻습니다. 제 아내도 똑같이 우리 목사님은 설렁탕하고 김치찌개 제일 좋아하신다고 하면 부담될까봐 그러냐고 하시면서 자신들 입장에서 제일 좋은 것으로 대접하십니다. 아마 목사를 대접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에 것가락이 먼저 가는지를 관찰하십니다. 그리고 잘 기억했다가 교회에 소문을 냅니다.

“목사님은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어떤 음식을 싫어하신다.” 그리고 다음 집에 심방을 가면, 제가 좋아하는 것으로만 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같은 목사가 뭐라고, 제가 뭘 좋아하는지, 제가 뭘 싫어하는지를 관찰해서 소문까지 내고 공유합니까? 저를 너무나 아껴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아직도 모르신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분석하는 것이 아니고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이 신앙입니다. 사랑하면 주변에서 보기에는 미친 짓으로 보이는데 태연하게 합니다. 사랑하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진짜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만큼 절절하고 간절하고 적극적인 것은 없습니다. 부모들이 왜 그렇게 자식들에게 약합니까? 왜 밥을 안 먹겠다고 떼를 쓰면 부모가 안절부절 합니까? 자식 앞에 꼼짝 못하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들이 자식을 사랑할 때 보면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아낌없이 내어 주는 희생을 했으면서도 늘 자식에게 못해준 것이 더 많다고 아쉬워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희한한 것입니다.

신앙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의 감정이 생겨야 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의식으로만 참여하고 식순에 따라서 참여해 버리면 기념식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의무적 수행으로 규율을 완수한 것으로만 마치면 신앙생활이 별로 재미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사랑의 감정이 생겼느냐는 겁니다. 사랑은 하는 순간부터 의무감에서 해방이 되어 버립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 수요기도회

오후8시

찬 송 208장 210장

성경봉독 요한계시록 2장 1-7절

설 교 최지훈 목사

계시록강해(12)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합심기도 다같이

## 금요심야

오후9시

찬양경배 찬양팀

성경봉독

설 교 최지훈 목사

합심기도

## 주일오후

가정과 목장에서 주일

예배에 주신 은혜를 나눕니다.

## 6월 봉사

### 식사

1	신후자,김은주/신주영,이정민,김진영
8	김옥식,이은자/문현실,심지영,김진아
15	윤금옥,임영옥/정순희,김송원,이세은
22	문현진,김동락/ 남자 성도

### 청소

1	김은주 집사
8	이은자, 김옥식 권사
15	신후자 목장
22	김동락, 이세은집사 가정

## 만화묵상

예당공작소,김은정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잠언 8:17



©예당공작소

## 노원성진교회 핵심가치

하나님을 빛나게 해드리는 감격의 예배

예배	시간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2부 오전 11:00
주일오후	가정예배
수요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	오후 9:00
새벽기도	오전 5:30
유.초등부	오전 11:00
청소년, 청년	오후 12:30



세상을 빛나게 하는 복음전도

후원협력선교	
선교사	대상
백정운 원 니	칼보디아 반석교회
정관석	엘립찬양선교회
조병선	주님의 교회
기아대학	노원지역 이사교회
학교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선교단체	한국순교자의 소리 길영한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소서

성도를 빛나게 하는 훈련과 양육

새가족반훈련	
등록 후 5주 등안	확신훈련
예비 목자훈련 12주	그리스도인의 확신
제자훈련 국제제자훈련원	제자훈련
새가족 양육 6주	사역훈련 재생산



## 지난 주 통계

주일오전	1부 7명 2부 43명	어린이 청소년부	7명 6명
주일오후	목장모임	청년부	3명
수요기도	12명	금요기도	21명

# 환영합니다

## Goal(목표)

- 세상을 빛나게 하기 위해 우리는
- 하나님이 주인되시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빛나게 해드립니다.
  - 믿음의 동류가 모인 목장을 통해 성도가 서로를 빛나게 합니다.
  - 일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사역을 지향합니다.
  - 은혜로 빛나는 사람을 세우는 말씀 양육과 훈련에 집중합니다.
  - 다음세대를 빛나게 하기 위해 부모를 교사로 세워 가정이 교회가 되게 합니다.
  - 지역사회의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어 사랑과 섬김으로 지역을 빛나게 합니다.
  - 교회는 건물이 아닌 예수믿는 사람임을 믿어, 성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 상식이 통하는 교회, 세상의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합니다.

## Mission(사명)

- 정성다한 예배와 섬김
- 끊임없는 훈련과 재생산
- 열매맺는 다음세대 양육
- 사랑가득 가정예배

노원성진교회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에 처음 참석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등록하지 않으신 분은 등록하셔서 함께 빛나는 삶을 누립시다.  
(등록하실 분은 안내위원에게 말씀해 주세요)

## 교회소식

### 1. 꿈을 먹고 살지요

- \* 오늘 2부 예배 후 1시부터 4시까지 '꿈을 먹고 살지요' 진행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 2. 50일의 기적

- \* 6월 14일까지 매일 저녁 8시에 모입니다. 20일 날았습니다.  
\* 이 기간 수요기도회는 저녁 8시에 모입니다.

### 3. 정기 제직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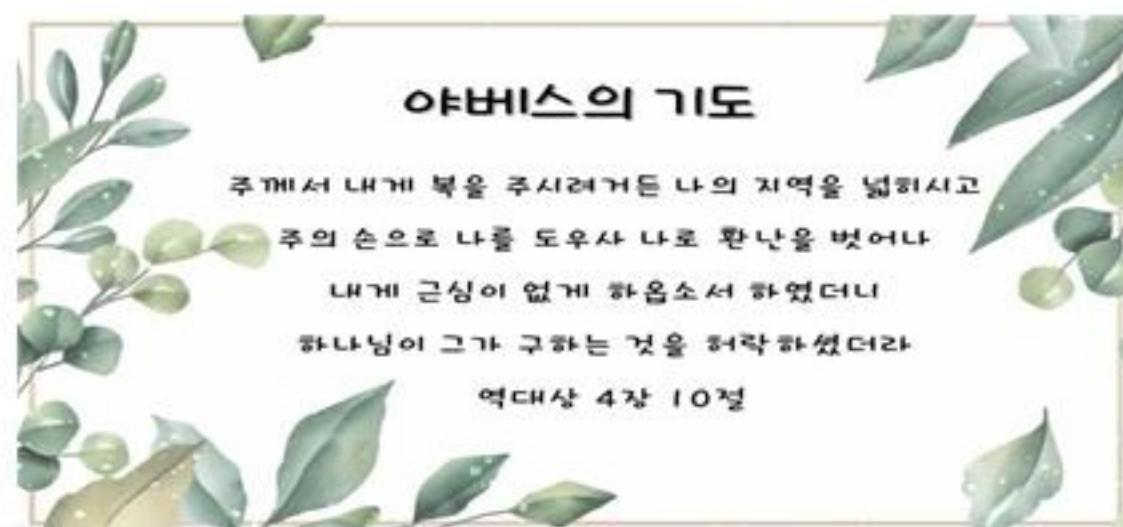
- \* 다음 주 2부 예배 후 정기 제직회로 모입니다.

### 4. 6·15 해피데이

- \* 6월 15일(주일)은 전반기 해피데이로 모입니다.  
태신자를 작정하는 것부터 전도가 시작됩니다.

### 5. 성도의 교제

- \* 실상준선생님(김인숙권사)의 건강을 위해 기도부탁드립니다.



온라인 현금 우체국 013342-01-007157 노원성진교회

지난주 향기로운 예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십일조	김민경 김은주(전계봉) 김일환(윤총임) 윤서오 윤서하 지상철 최다함 최드림
감사	김민경 김옥식 무명3
선교	김일환(윤총임)
건축	김일환(윤총임)
찬조	꿈먹살-김옥식 이은자 소풍-김일환(윤총임)



## 세상을 빛나게 하는 교회

### 노원성진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서평양노회에 소속된 교회로

교단신학교는 총신대학교입니다.

### 노원성진교회는

예배, 훈련, 다음세대, 가정이라는 핵심가치를 통해 모든 사람을 예수님의 건강한 제자로 세워갑니다.

노원성진교회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빛나게 해드리고, 은혜로 성도들이 빛나는 삶을 살게 하고, 다음세대를 빛나게 하는 가정들을 세우기 위해 거룩한 별걸음을 쉬지 않습니다.

성진(聖進)은 거룩한 전진, 거룩한 별걸음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인되신 예수님의 거룩한 별걸음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 공동체입니다.

131-859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로8길 13  
02-939-0191  
부설 자라는작은도서관  
02-932-0191  
[www.nwsj.net](http://www.nwsj.net)

유튜브 '노원성진교회', '최지훈목사'

### 섬기는 사람들

### 담임목사 최지훈

은퇴장로 문승식  
시무장로 김권수 김일환  
자라는도서관 신후자  
반주 문현실 미세은 미정민

# 기도로 구하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낸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사야 43장 19절

CGODOMME.COM

44권 19호 / 2025.05.25.

## 주일오전예배

1부 오전9시	2부 오전10시50분
두 손 들고	신앙고백
215장	찬양팀
예배를 위해	김권수 장로
통성기도	(문현진 안수집사)
220장 이종훈집사, 김은주 집사	인도자
마태복음 22장 34-40절	

## 교회니까요

꽃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 ★는 일어서서 예배합니다.

-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은 앞자리부터 앉으시고, 휴대폰은 사용을 자제해주세요.
- 영유아의 자모님들은 유아실에서 예배드리세요.
- 함께 신앙생활하기 원하시는 분은 안내위원들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노원성진교회